

관심 갖고 준비해야 미래에 존경 받는다



봉은사 초청 법회, 송광사 승가대학장 일귀 스님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에서 진행되는 강주스님 초청 세 번째 법회가 송광사 승가대학장 일귀 스님을 법사로 6월 12일 봉은사 법당에서 봉행됐다.

스님은 “한국의 미래를 부탁하기 위해 봉은사에 왔다”며 “봉은사 신도들은 미래의 한국이 지금처럼 위상을 잃지 않고, 한국 불교가 존경받는 세상이 되도록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법문의 요지다. 정리=이은은 기자

한국불자들이 정신차려야 한다

한국인이자 강남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곳에 사는 분들은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축복받은 분들이다. 이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봉은사에 왔다.

강남이 한국의 1번지이듯이 봉은사는 불교의 1번지이다. 신라, 고려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조선시대까지도 봉은사는 불교의 1번지였다. 한국불교의 중심도량이었다. 어려운 시기에 분란을 극복하기 위해 나타난 서산·사명 대사 등 많은 스님들이 이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

봉은사에 모여 공부하고 수행하고 영혼을 맑히는 분들 덕분에 한국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곧이 말 안해도 되지만 이 말은 하고 싶다. “정신을 좀 차려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 미래를 준비하는 브레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신을 차리려면 우선 ‘어떤 것이 부처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삼신(三身)이라고 해서 부처를 성질상 3가지 종류로 나누어 표현한다. 법신(法身), 보신(報身), 화신(化身)이다.

〈금강경〉의 계승에서 부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를 찾으려 하거나 음성으로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불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끝내 부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고 가르친다.

쉽게 말해 불성이라고 표현하는 법신은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시간적으로는 오늘, 공간적으로는 가깝게 내 몸을 떠나지 않고 있다.

다음은 보신(報身)이다. 보신은 보살이 수행 정진한 과보에 의해 얻어지는 원만(圓滿)한 불신이다. 보신은 뒤야내서 깨끗해진 진리와도 같다. 흙덩어리에 있는 진주는 흙을 털어내면 빛나는 진주가 되듯이 우리도 법문을 듣고 108배하고 좋은 일을 하면 깨끗해질 수 있으며 끝내는 부처가 된다.

화신은 응신(應身) 또는 응화신이라고도 하는 데 교화할 대상에 따라 일시적으로 적절한 모습을 화작(化作)하는 불신이다.

수행을 하면 점점 상승된 모습으로, 마지막에는 완벽한 부처가 된다. 석가모니도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생을 통해 부처가 됐다.

우리가 현재 부처님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극락 세계인지 한번 돌아보자. 우리 현실은 좋게 보면 좋을 수 있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정말 불안한 세상이다. 요즘 사람들이 집값이 하락한다고, 전세대란이라고 불안해한다. 요즘 지방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해 외국인 신부를 데려와 결혼해서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겼다. 외국인 엄마는 한국말을 못하고 아이는 혼혈이라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의 문제가 많다. 1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됐을 때를 생각해보자. 보통일이 아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중동사태를 비롯해 북한 문제도 그렇고 외교, 안보문제도 심각하다.

일본지진, 쓰나미, 방사능 오염, 고엽제... 부처로서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세계가 지금 극락세계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혜안을 갖고 준비해야

몇 십년 전만 하더라도 불교가 강세였는데 지금은 기독교가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은 “불교가 망했다”라고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의 안목을 갖고 준비하면 불교가 세상을 리드할 수 있다.

부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난관을 헤쳐 나갔는지 생각해보자. 불교의 기본 가르침인 사성제(四聖諦)에 나와 있다.

부처님 당시에 제자가 “부처님 무엇이 고통입니까?”라고 질문하니, 부처님은 “생로병사가 고통이

고(苦)는 고통이 생겼다. 다른 말로 12연기라 할 수 있다. 무명(無明)·행(行)·식(識)·명색(名色)·육처(六處)·촉(觸)·수(受)·애(愛)·취(取)·유(有)·생(生)·노사(老死)를 알면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다.

불도를 수행하는 자는 반드시 세 가지 근본 수행을 해야 한다. 계학(戒學)·정학(定學)·혜학(慧學)이다. 계는 악을 저지르지 않고 선을 닦는 계율(戒律), 정은 심신을 고요히 하고 정신통일을 해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하는 선정(禪定), 혜는 번뇌를 파하고 진리를 증득(證得)하는 지혜를 가리킨다.

우리는 지혜를 통해 세상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독도, 북한 등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강남사람들은 미래의 한국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혼자만 잘산다고 잘살 수 없다.

경주 최부자는 흥년에 절대 눈을 사지 않았다. 자기 마을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했다. 이것이 최부자의 철학이었다. 그렇게 해서 최부자는 대대손손 부를 유지했다. 강남도 최부자 처럼 복을 계속 누리려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도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부탁하겠다. 중도를 위해서 계정의 삼학으로 닦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와 감사’다.

기도로는 다라니를 외워야 한다. 다라니에는 힘이 있다. 다라니는 신비로운 힘을 갖고 있는데 그 힘의 원천은 본래불성의 작용이다. 본래불성은 신(身)·구(口)·의(意) 삼업(三業)에 의해서 나온다. 앞서 얘기했듯이 강남사람들은 ‘한국을 책임져

야 한다’는 강한 믿음과 신념을 가져야 한다. 이 힘은 삼업(三業)에 의해 나온다.

언어에는 힘이 있다. 욕을 들으면 힘이 빠지고 칭찬하면 기운이 난다. ‘할 수 있다’를 세 번만 하면 힘이 생기고 만 번만 하면 다라니가 된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자들이 강남을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면 50년 후에는 반드시 불자들이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다.

감사함의 반대 개념은 ‘심심’이다. 심심할 때 우리는 어떤가. 심심하면 문제가 생긴다. 가난한 사람은 심심하지 않다. 부자가 심심하다. 그래서 부자들이 망할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이다. 심심할 때 절대 감사하지 않고 감사할 때 절대 심심하지 않다. 이 두 개는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심심할 때는 자기 뺨을 때려야 한다. ‘채앙이 올 징조구나’ 하고 내 뺨을 때린다. 감사하다고 느낄 때는 복이 오고 있다는 징조다.

재미있는 우화가 있다. 어느 추운 겨울 굶주린 늑대는 호랑이가 여슬렁 돌아다니는 새끼토끼를 만났다. 새끼토끼는 엄마젖을 배불리 먹고 나와 호랑이를 만난 것이다. 토끼는 속으로 ‘부처님 살려주세요’라고 했다. 호랑이는 뭐라고 했을까. ‘부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부처님은 달라고 하면 준다. 하지만 부처님은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 더 많이 준다.

이왕 부처님께 ‘-을 해주세요’라고 할 바에는 ‘나도 남을 제대로 돕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해보자.

우리는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데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보통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은 로마시대 황제를 능가할 정도로 누리고 산다.

한국은 1970-80년대에 급속 성장을 했다. 현재의 70-80세 노령층의 희생과 노력덕분에 한국이 좋은 나라가 됐다. 성(成)을 빼앗기 보다 수성(守成)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 개발, 투자 등에 헛욕 심 내지 말고 정신차려야 한다.

경제 후진국들이 우리처럼 누리고 살게 되면 환경오염이 악화된다.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들 보다는 누리고 살고 있다. 하지만 후손들의 것을 망쳐쓰고 다른 지역의 복을 빼앗아 쓰고 있다. 지구촌 전체로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 어디다 신경을 써야할까. 미래 불교에 힘을 써야 한다.

우리 앞에 있는 부처님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자. 앞으로 부처님이 무엇 때문에 오는지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다. 아니면 우리가 너무 살기 편해서 부처님이 오시기를 정말 바라거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부처님은 항상 우리곁에 있다. 너무 방심하면 부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한다.

일귀 스님은...

1981년 구산 스님은 은사로 득도,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85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 송광사 승가대학 강사, 실상사 화엄학림 교수, 송광사 승가대학교수를 역임한 스님은 현재 송광사 승가대학장을 맡고 있다.

법정스님 뵙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진정한 행복이란 자기만의 꽃을 피우는 일이다



불일암에서 법정스님의 법문을 듣는 정찬주 작가

재가제자 정찬주 작가가 법정스님의 수행처를 찾아 깨달은 명상의 글



법정스님의 배려용 의자

작가는 법정스님이 수행했던 암자와 절을 순례하며 우리들에게 자기만의 꽃을 피우자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를 길벗 삼아 법정스님의 자취를 찾아가는 '무소유 성지순례길'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현장스님

스님의 수행처를 다 순례하는 동안 나는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스님은 꽃 피듯 물 흐르듯 사는 것을 무소유의 삶이라고 사유하신 것이 분명하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므로 진정으로 흥분해지고 자기다워지는 삶이 무소유의 삶인 것이다. “나도 없는데 하물며 내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다. ‘귀속의 귀’가 열려야만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다. 스님, 뵙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정찬주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

법정스님의 자기다운 영혼은 무엇인가?

정찬주의 마음기행

